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주군, 정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전북도 2단계 연장 방침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해 왔던 무주군이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무주군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과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청정지역 무주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2단계로 격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무주군의 경우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집합금지(영업중단), 노래연습장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도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되며, 영화관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식당의 경우 5인부터 예약과 동반 인정이 금지되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또한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은 집합금지(운영중단), 곤돌라의 운행도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중단됐으며, 덕유산 향적봉의 새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해 왔던 무주군이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무주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모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부와 무주군

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 한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안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행정명령에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 기업 모집

내년 1월 15일까지

장수군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신규 지원 인원 9명)에 함께 할 참여 기업을 오는 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장수형 청년정착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고용 기업에는 월 최대 인건비 200만원(자부담 20%), 기타지원비(교육비 등) 25만원(자부담 20%), 자율지원비(교통비 및 4대보험비) 3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 가능한 기업은 장수군 소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다. 참여 기업을 모집한 이후 참여자를 1~2월 중에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기존 인원은 지속고용

을 유지하고 신규 인원은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며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기반 단체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교익 진안군 기획감사실장 과로로 사망

장교익(54) 진안군기획감사실장이 지난 27일 코로나19 비상근무중 귀가하다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진안군에서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연일 확진자 방역을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해 있었다.

이 날 장 실장은 며칠 전부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군지역의 방역상황을 대처하며 진안에 거주하며 대기했다.

장 실장은 주민들의 방역을 위해 나섰다. 그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수시로 참석하

며 대응하는 과도한 근무를 했다.

또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매달려 업무를 처리했다.

장 실장은 지난 1993년 진안읍에서 공직을 시작해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근무를 거쳐 2017년 사무관으로 승진, 지난 2018년 진안읍에 전입해 환경과장, 행정지원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총력

태권도성지 무주군·설립 이유 등 담야 관련 책자 제작·배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무주군의 열기가 뜨겁다.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100만인 국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벌여온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 책자를 제작(총 6천 부), 배포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책자는 국가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태권도시의 완성과 태권도 세계화에 발판이 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발간한 것으로, 관내 기관, 사회단체와 마을 구심체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태권도 단체는 물론, 전국 대학교 태권도 학과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문화브랜드이자 전 세계 210개국 1억5,000만 명이 수련하는 태권도의 위상을 비롯해 ▲국립 태권도원이 위치한 태권도성지 무주(제5차 국토종합계획 무주 태권도시 조성으로 국제성지화 완성), 그리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에 대한 설명과 ▲추진활동 및 전자 서명운동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익·국가 경쟁력·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1석 3조의 기회이자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비롯해 ▲올림픽 영구 종목화로 태권도 위상 강화, ▲태권도 저변확대, ▲1억5,000만 세계 태권도인의



종주국 방문 실현, ▲국가 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이유로 들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세계 태권도인의 꿈이자 한국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라며 “고속도로 5km 건설비용만 줄여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만큼 태권도의 자존심을 세우고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사관학교 설립에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현재 졸업생에게 태권도 국제사범 자격을 수여해 태권도 보급 확대와 수련생들의 종주국 방문을 유도하게 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100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전개 중으로, 앞으로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태권도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이명진 진안군 정천면장 정년퇴임

이명진 진안군 정천면장이 29일을 끝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명진 면장은 1987년 12월 공직에 첫 임용돼 부귀면, 주천면, 건설과를 거쳐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기획재정실 기획팀장, 경리팀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1월 정천면장으로 부임했다.

이 면장은 33년 재직기간 중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김의 자세로 헌신했으며 특히 청렴결백한 공직생활로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 면장과 함께 정천면 정현지 평생학습지도사가 이날 함께 퇴임했다. 이날 퇴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로패 수여식 등으로 약식으로 치러졌다. 이명진 면장은 “퇴직 후에도 공직생활 중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겠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2명에 감사패 수여

장수군은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 문화제를 알리는데 힘써온 김기근 문화해설사와 오재영 해설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문화관광해설사로 바뀌기 전인 ‘문화유산해설사’ 당시부터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고 전문적인 관광해설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수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등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들 해설사는 고령임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해설에 참여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에 우수한 점수를 취득, 관련분야 연구와 학습에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장수군수는 “오랜 기간 장수의 관광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초석을 다져 온 김기근, 오재영 해설사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해설사로서 업무를 마쳐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천 협약

무주읍 잠두·설천면 기곡마을

무주군이 농업환경 개선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천을 본격화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무주읍 잠두마을, 설천면 기곡마을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실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농업환경 개선 정책 등을 추진하고 ▲각 마을은 개인·공동활동 이행, 마을별 농업환경 개선활동 발굴, 주민 교육, 컨설팅 참여 등에 매진하기로 했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이상형 과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결국, 농업인들의 의식개선과 활동실천을 지원해 농촌 활성화를 주도하는 동력”이라며 “실천을 생활화하면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 토양과 용수, 생태, 경관 및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



는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 대표들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일이 마을과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냉해,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기후변화도 결국은 환경에서 오는 일인 만큼 환경을 고려한 농사로 생활환경과 농업환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